

- 앵커 : 해외여행이 늘면서 덩달아 호황을 누리는 곳, 공항 면세점입니다.

인천공항이 개장 5년 만에 매출이 2배로 뛰었는데 대부분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들이 돈을 썼습니다.

임영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천공항에 들어와있는 면세점업체는 모두 4곳.

지난 2001년 인천공항이 개항했을 때 이 4곳의 총 매출액은 3400억원.

그런데 작년에는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7500억으로 늘었습니다.

순수입규모 역시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2001년 900억이던 순수익이 작년에는 2000억원을 넘겼습니다.

내국인들의 해외여행 증가와 맞물려 면세점 매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이용비중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면세점 이용객 중에서 외국인 비중은 2001년에 57%였는데 매년 줄어들어 작년에는 14%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화장품과 향수 등 해외 유명브랜드 상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내국인들의 쇼핑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통계를 내놓은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인천공항 환승여행상품을 개발해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외국인 기호에 맞는 품목 개발 등 외국인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임영서입니다.

[정치][뉴스투데이]임영서 기자

뉴스 동영상 주소 :

http://cue.imbc.com/newsSearch.asp?nil_Search=btn&start=0&count=10&opt=1&cluster=2&convert=&choicecolls=NEWS&query=%B0%F8%C7%D7%B8%E9%BC%BC%C1%A1&x=20&y=17